

개미와 전쟁 치르는 NPS, 왜? 三電 팔고 해외투자 확대

(국민연금공단)

9조 산 개인, 9조 판 기관

연기금 국내주식 비중 더 낮아져
기관, 연기금 3조5914억 매도
NPS 지분 높은종목 주의 필요

연기금이 연일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증시 '큰손'으로 평가됐던 연기금은 최근 개인투자자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며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연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더 낮아지며 연기금의 매도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9조495억원을 순매도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8조7191억원을 사들인 점을 감안하면 기관이 벌고 개인이 담는 그림이다.

◆9조원 판 기관, 3.5조원 판 연기금

연초 8거래일 기준 개인은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를, 반대로 기관은 최대 수준의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증시의 최근 수급 상황은 개인과 기관의 공방전이다.

기관 매도의 주범은 연기금이다. 3조5914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기관 전체 매도 물량의 40%가 연기금으로부터 발생했다. 투신(1조7214억원), 금융투자(1조6121억원), 보험(1조2325억원), 사모펀드(7710억원) 등이 연기



국민연금이 올해 말까지 맞춰야 하는 국내주식비중은 16.8%로 적어도 6조2838억원을 더 팔아야 한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금의 뒤를 이었다.

연기금으로 분류되는 수급 주체는 연금, 기금, 공제회와 함께 국가, 지자체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연기금의 국내주식 매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의 대표로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올해 말까지 맞춰야 하는 국내주식 비중은 16.8%로 지난해(17.3%)보다 0.5%포인트(P) 낮아졌다. 77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상 0.5%P는 지난해 10월 말 기

준으로 3조8515억원이다.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6조원 더 팔아야

여기에 지난해 낮추지 못한 물량도 있다. 지난해 10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18.0%였다. 기금운용계획상 17.3%를 맞추기 위해선 전체 운용자산 중 0.7%포인트에 해당하는 5조4000억원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순매도 금액은 2조9162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서 넘어온 2조4838억원에 추가로 낮춰야 하는 비중 3조8000억원을 더해 올해도 6조2838억원을 팔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연기금 월별 순매도〉

월	순매도 금액
2020.6	7437
2020.7	1조845
2020.8	1조5716
2020.9	1조3153
2020.10	5345
2020.11	1조1052
2020.12	1조8110
2021.1.13	3조2690

(단위: 억원)

/한국거래소

연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따라 움직인다. 전술적 이유로 일정 수준 이탈할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자산군 목표 비중은 연금이 목표로 해야 하는 기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도 규모를 늘렸던 이유도 그래서다. 연기금은 지난해 증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저점 구간에서 머무를 당시 시장에 유동성을 투입하며 개인과 함께 구원투수로 활약한 바 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7조4269억원을 팔며 이 기간 기관 전체 순매도 금액(15조431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연 말까지 수익을 확정 짓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 물량을 쏟아내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구체적 규정에 의해 자산

운용이 이뤄지고 있어 재량권이 굉장히 좁다"며 "다분히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사실상 과감한 투자 진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 의지 분명, 삼성전자 왜 팔았나

해외투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국민연금의 의지는 뚜렷하다. 국민연금은 이날 조직개편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해외증권실을 돌로 나눴다. 지난해 마련된 해외투자 종합계획에 따라 해외증권 투자부문 조직인 해외증권실을 해외주식실과 해외채권실로 분리·확대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분이 높은 종목 중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정보업체에 프랭카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을 보유한 종목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7일 종가 기준 172조1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132조6212억원)보다 약 30% 증가해 이익을 본 만큼 차익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연기금은 52조947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30.8%)을 차지한 삼성전자를 올해 들어 12일까지 7거래일 동안 1조305억원 어치를 팔았다. 이 기간 전체 순매수금(3조269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브레이크 없는 개미, 새해 '황소장세' 여전

개인 여전히 순매수세 이어가

"조정 없이 시장과열" 우려 목소리

새해 들어 '황소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22.34포인트(0.71%) 오른 3148.29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여전히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큰 폭의 조정 없이 시장이 과열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스피는 1월 들어 개인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6.16%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조6764억원, 1219억원을 순매도했으나, 개인은 무려 8조5505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추가 하락을 지지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용자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용자는 20조5110억원(코스피 10조3706억원·10조1404억원)으로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최대금액인 12월24일(19조4536억원) 대비 5.99% 증가한 수치다. 또 올 최저치인 1월4일(19조3522억원) 기록과 12월 최고치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비춰볼 때 '빚투' 열기는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세 속에서도 변동성 확대로 장중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50p(-0.71%) 내린 3125.95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

반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사랑'에도 불구하고 증시 조정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3일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등락률이 7.24% 내린 32.42로 마감했다. 12일에는 전날보다 22.17% 상승한 35.65로 마감하면서 지난해 6월18일(37.30)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VKOSPI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주가 지수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 '공포 지수'라고도 불린다.

지난 12일 기준 대차거래 잔액도 47조157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보통 공매도 대기 물량 등을 의미한다.

실제 최근 금융당국이 오는 3월16일 공매도 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힘에 따라 공매도가 증시에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언급 영향으로 지난 12일 코스피는 0.71% 하락하기도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지난해 11월 이후 10주 연속 상승함에 따라 단기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코스피가 이례적인 급등세를 이어온 만큼 되돌림 국면에서의 단기 변동성 확대 또한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재인 기자 yji1208@

지수 방향성 베팅하는 개미... 곱버스 투자 ↑

(곱하기+인버스)

상승세 이어가던 코스피, 변동장 맞아

직장인 A씨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3000원을 지불하고, 1시간짜리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F(ETF·ETN) 가이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했다. 그는 교육 이수 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출한 뒤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을 매수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한 점을 감안했을 때 조정장이 찾아올 것이라 전망에서다.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지수가 변동장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인버스 상품과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등 단기적인 증시 방향성에 베팅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개인투자자 ETF 순매수 상위 10종목 가운데 2종목이 인버스 상품, 2종목이 레버리지 상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KODEX 200선물인버스, KODEX 인버스, KODEX 레버리지,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개인 순매수 2위 ETF는 KODEX 200선물인버스 2X가 차지했는데, 이른바 '곱버스(곱하기+인버스) 상품'으로 코스피200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률이 2배로 증가한다. 반대로 해당 지수가 오르면 손해도 2배로 커진다. 이날 개인투자자는 KODEX

200선물인버스 2X를 753억6035만원 순매수했다.

새해 들어 연일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에 조정장이 찾아왔다. 지난 6일 장중 3000선 돌파, 8일 3100선 돌파에 이어 11일에는 3200선을 넘기도 했다. 단 기간 변동성이 커지며 지수가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인버스·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는 이달 들어 KODEX 200선물인버스 2290억9049만원, KODEX 인버스 1693억194만원, KODEX 레버리지 856억489만원을 순매수했다.

한편,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기본예탁금도 맡겨야 해 진입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장중 변동성이 커진 만큼 지수 하락 베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KODEX 200선물인버스, KODEX 인버스의 한달 수익률은 각각 -27.54%, -14.57%에 달한다.

강봉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2년까지 이어질 한국 기업 이익 증가 국면이 추세적 강세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며 "최근의 증시 반등 속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펀더멘털 투자 환경을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